

분해·조합, 반복을 통해 진화하는 네모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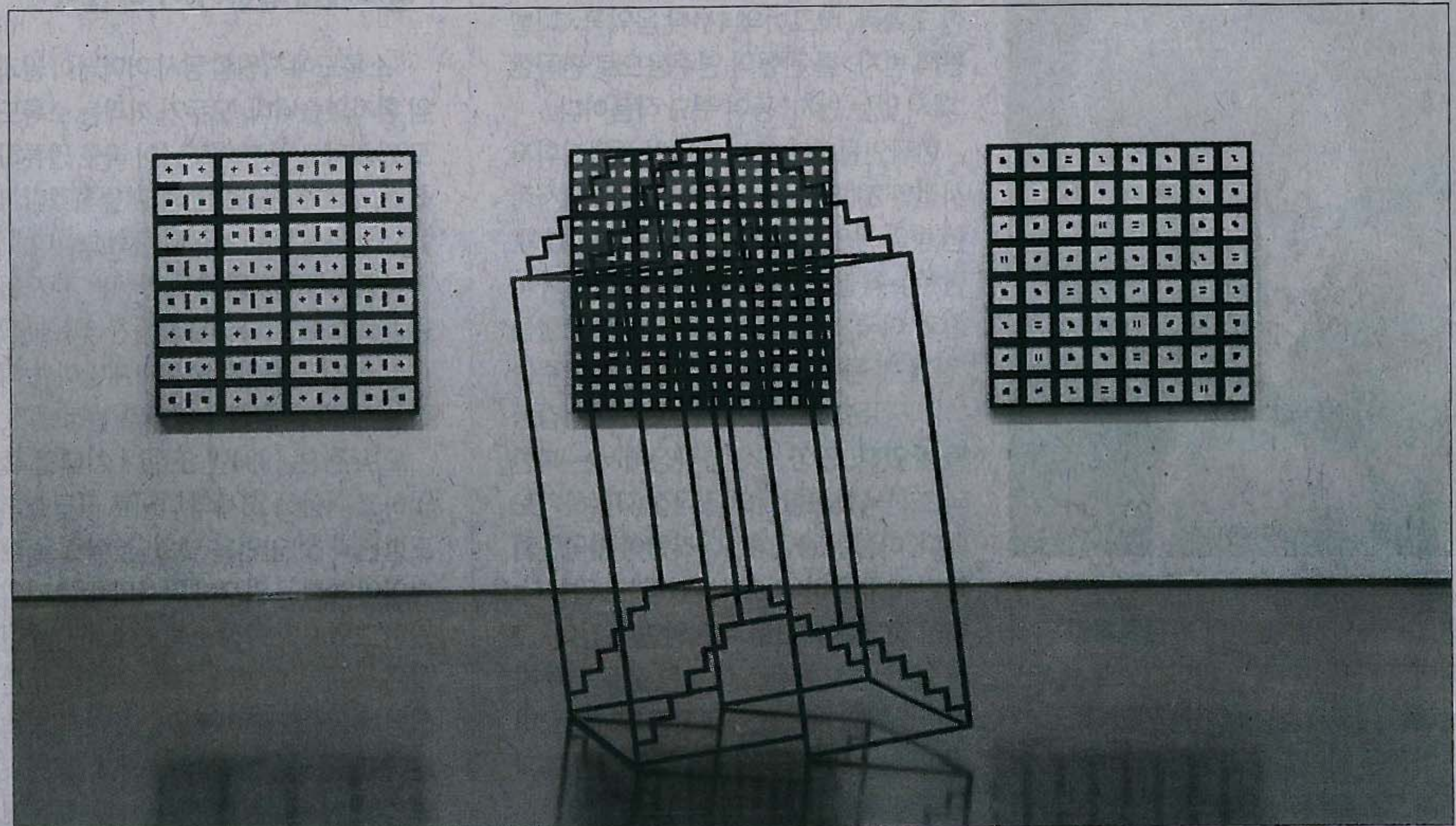
홍승혜 개인전 ‘회상’

“엮히고설켜 갈등하는 ‘픽셀’
공간과 공존할 때 조화·균형”
17년 ‘네모 작업’ 결산 전시

네모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형태다. 책, 책상, 아파트,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사무실... 딱딱하고 규범적인 인상을 주는 네모이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하기에 곳곳에 활용된다. 컴퓨터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도 네모다.

홍승혜 작가(55·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작품은 모두 픽셀로 구성됐다. 평면, 입체, 미디어아트는 물론 벽화, 가구까지 모두 네모가 주인공이다. 네모가 어디까지 얼마나 다채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작가의 미감에 따라 어떻게 미술 작품으로 진화를 거듭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저 단순한 네모의 픽셀은 그를 거치며 조합, 분해되거나 세포가 분화하듯 일정 비율로 반복, 확장된다. 기계적·무생물적이던 네모들이 리듬을 타고 유기물처럼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상반되는 개념이 녹아든 ‘유기적 기하학’이란 시리즈 제목은 아주 적절하다.

홍 작가가 개인전 ‘회상(回想)’을 국제갤러리(서울 삼청로)에서 열고 있다. 1997년 이후 제작한 주요 작품들이 형태, 소재, 매체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형돼 왔는지 되돌아보는 회고전 성격이다. 1997년 컴퓨터 드로잉에 기초한 실크스크린 작업은 잉크젯 프린트로, 서랍 모양의 알루미늄 패널 작업은 실제 가구로 재현됐다. 또 벽화 ‘회상’은 알루미늄 패널로 만들어지고 ‘파편’의 벽면 부조들은 전시장 바닥으로 내려와 건축적 면모를 보여준다. 나무 조각은 무채의 철제로 변했고 설치작업 ‘About Frame’은 다시 제작됐다.



‘회상’전에 설치된 픽셀 작품들. ©김상태

지난 10여년간 작업한 6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더 센티멘탈’ 시리즈를 흑백으로 전환한 ‘6성 리체르카레’도 2층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음악과 픽셀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대위법 형식이 돋보이는 바흐의 걸작 ‘음악의 헌정’이 흐르는 가운데 다양한 모양의 픽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만났다가 떨어지는 등 다채로운 영상을 선사한다.

작가는 “한 번쯤 정리하고 싶었다”며 “과거의 이미지와 방법론을 돌아보고 변주하는 과정에서 회상 행위 또한 진화의 한 과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과거 작품을 회상하는 전시가 아니라 실험, 연구를 통해 또 다른 진화를 모색한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1997년부터의 작품일까. 작가는 대학과 유학(파리 국립미술학교) 시절에 회화를 공부하고 종이 콜라주 작업을 했다. 그런 그가 1997년부터 물감과 붓, 캔버스를 버리고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마우스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

다. 포토샵에서 드로잉을 하고 매체와 재료, 크기 등을 결정해 작품을 제작해 전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다.

“1996년 한글 타자를 치기 위해 컴퓨터를 처음으로 부팅했다가 포토샵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드와 픽셀로 백지에서 생성되는 기하학적 도형들에 흠뻑 빠졌습시다. 그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는 “손으로 하는 작업이 따라갈 수 없는 정밀함, 속도감에 빠져들었다”며 “정밀함은 비례와 모서리가 중요한 제 작업에서 매우 유용하고, 속도감은 직관을 활성화해 상상력을 극대화시킨다”고 밝혔다.

그의 작업은 작품 자체 외에 공간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그 관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엮히고설켜 갈등하는 세상사 속에서의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가리킨다. “작품과 공간과의 관계는 사실 제 자신이 타자와 맺고 싶은 관계의 성격과 유사합니다. 작품이 공간을 지배하

지도, 공간에 지배 받지 않는 상태를 꿈꾸죠. 조화롭고 균형잡힌 상태라고나 할까요. ‘유기적 기하학’은 수많은 아이러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유기적 기하학’적 모순으로 가득 찼고,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분신’이라는 그의 작품과 작품이 놓인 공간은 관람객들에게 네모의 다채로운 변주를 넘어 나와 나,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네모 작업은 계속된다. 아직도 흥미로운 지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안정적으로 뭔가를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단위인 네모가 앞으로 무엇을 생산해 낼지 미리 알고 싶지 않다”며 “시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끊임 없는 ‘유기적 예측불허감’이야말로 작업을 흥미진진하게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8월17일까지. (02)735-8449